

농기계 생산 외길 63년...

한국농업기계 발전과 함께 해온 대동공업(주)

글 이미숙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팀 과장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 해방 직후 경운기를 시작으로 각종 농기계를 생산하여 농촌의 근대화 및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동공업(주)을 방문하고, 이곳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기욱 과장을 만나 보았다.



농기계 생산의 외길을 걸어온 대동공업

1947년 설립된 대동공업(주)은 그 동안 국내 농기계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지난 63년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등 각종 농기계를 생산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선진화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농기계 생산의 외길을 묵묵



히 걸어온 국내 최대의 종합형 농기계 생산업체이다.

대구 달성에 위치한 본사 및 공장을 비롯하여 서울사무소, 연구소, 훈련원, 8개 영업소가 있으며, 총 800여명의 직원 중 530여명이 이곳 대구 달성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계열사로는 대동기어, 대동금속, 한국체인공업, 대동USA가 있으며, 대부분의 부품을 이들 계열사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품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올해 초에는 중국에 11만9천㎡ 규모의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70억원 규모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력제품인 50~110마력급 신형 트랙터 판매에 나서고 있다.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

대동공업은 지난 1994년 세계 최초로 엔진 조립공장을 완전 자동화했으며, 2006년에는 최첨단 엔진라인을 증설하고 자동화라인을 구비하여 안정된 품질의 농기계를 연4만대 가량 생산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연매출은 4,181억에 달하며, 우리나라 농기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일본 등 해외로도 수출하여 지난 2008년에는 농기계업체로는 최초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ISO 9001/14001, EEC, OHSAS 18001 등의 인증도 획득하였다.

농기계 1대 가격은 대략 2천만원~1억원 수준이다. 농기계라고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농기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울퉁불퉁 경사진 땅에서도 작업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평제어장치, 트랙터가 전복되어도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등도 장착해야 한다. 에어컨과 히터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고, 오디오와 냉·온장고도 장착한다. 부부가 함께 탈 수 있도록 2인용으로 만들어 달라는 농부들의 요청이 많아 보조좌석도 놓고, 외관도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디자인한다. 국



내에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규제기준이 없지만, 대동공업은 해외 수출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까다로운 배기가스 규제기준도 충족하고 있다.

첨단 화재안전 시스템 갖춰

대동공업의 공장내부는 마치 전자제품공장과 같은 인상을 준다. 첨단 자동화시스템,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 깨끗한 내부, 잘 정리된 부품들 때문이다. 소화시설 역시 전자공장 수준이다.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은 대부분 P형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동공업 공장에는 최첨단 R형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주로 클린룸에서나 설치되는 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하였으며, 12대의 CCTV로 만일의 사태를 위해 늘 점검하고 있다. 유사 시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청정자동가스설비를, 부품창고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공장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고안한 수동식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자체방호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화재안전에 대한 교훈을 되새겨

대동공업의 소방설비들은 소방법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화재안전을 중시하는 경영진의 열린 생각과 대동공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기욱 과



장의 노력 덕분이다. 15년의 경력을 가진 김과장은 입사 후 1년이 채 안된 12월 마지막 날 화재사고를 경험했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 탓에 직원이 실수로 난로를 켜놓고 퇴근한 것이다. 비록 크지 않은 사고였지만, 이를 계기로 김과장은 “내가 하는 일은 어느 업무와 달리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교훈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14년 전의 교훈을 아직도 간직한 채 업무에 임하게 되었고, 5년 전 경영진을 설득하여 첨단 소방설비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화재안전에 대한 노력 덕분에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방재청상 등 수상경력이 많은 김과장은 3년 전 금연운동을 벌여 연 20~30여명 가량을 금연에 성공토록 하였으며, 퇴근 시 전기기구 점등 등 직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공장 내 과속을 하거나 위험장소에서 흡연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3번 이상 발견되면 아웃을 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화재 우려가 많은 용접작업 시 사전에 허가를 받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등 대동공업의 안전을 위해 늘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공일생

대동공업의 키워드는 “기공일생(機工一生)”이다. 기계에 평생을 바친 창업자 김삼만 회장의 회갑일에 당시 국무총리인 김종필씨가 선물했다고 한다. 자동차산업의 유혹도 뿌리친 채 60년이 넘도록 농기계만을 위해 달려온 대동공업의 우직하고 끈질긴 열정과 대동공업의 안전을 위한 김기욱 과장의 신념과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다.

세계 속 농기계 메이저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대동공업의 제품들이 농사를 짓는 전 세계의 논과 밭에서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탐방을 마쳤다. ㉞



△ 대동공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기욱 과장



△ 대동공업의 정신을 잘 나타낸 '기공일생'



△ 창업자 김삼만 회장 동상

